

종합

국회 빈소 마련 ... 장의위원 2,371명 사상최대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봉황 휘장 덮어 안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이 20일 오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임시 빈소를 떠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공식 빈소로 운구됐다.

국장 기간 김 전 대통령의 관은 국회 봉황소를 뒤로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 10m 앞에 있는 흰색 천막에 있는 안치소에 모셔진다. 길이 2.5m, 높이 1.5m 크기의 봉장용 유리관의 하부는 나무로, 상부는 반원 모양의 투명 유리로 돼 있으며, 김 전 대통령의 관은 국회로 운구되자마자 사면에

금색 봉황 휘장이 새겨진 붉은색 천에 싸여 이 유리관 속에 모셔졌다. 내부는 섭씨 2도를 유지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본사 유제철 사장 등 분향

○20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3시간가량 늦어 국회의사당 광장에 빈소가 마련돼 안치되자 이희호 여사를 시작으로 조문객들의 분향이 이어졌다. 이 여사는 오후 4시54분 홀로 남편의 영정 앞에 헌화·분향했고, 장남 김홍일 전 의원, 홍업, 홍결씨 등 3형제와 가족들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한나

라당 전 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이 이날 박지원 국회의원의 안내로 헌화·분향한 뒤 상주 자격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김효석, 이낙연, 유선호 국회의원과 등과 고인과의 인연을 회상하며 넋을 기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20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례식날인 23일까지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며 분향소 설치비용은 권양숙 여사가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공식 분향소에 오후 3시까지 총 9만9천922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문객 수는 서울 2만1천

864명, 부산 2천853명, 광주 1만7천362명, 대구 1천510명, 인천 885명, 대전 2천182명, 울산 628명, 경기 6천955명, 강원 2천90명, 전남 2만8천813명, 경남 1천534명, 충남 2천550명 등이다. 분향소는 16개 시·도에 22곳, 시·군·구 지역에 153곳이 각각 설치돼 운영중이다.

○오는 23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치러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주관하는 장의위원회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사상 최대 규모인 2천371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 1천383명보다 약 1천명 많다.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 부의장 2명, 선임 대법관, 수석 헌법재판관, 김황식 감사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6명이 부

위원장을 맡았다. 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및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이뤄졌다.

23일까지 조기 게양

○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주·야간 상관이 없으리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23일 오후 6시까지 매일 낮에 조기를 단다. 게양 방법은 깃 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 등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임동욱기자 tuim@kwangju.com



애도 현수막 광주일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20일 본사 사옥에 추모 플래카드를 내걸어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니맘주기자 mjna@kwangju.co.kr

“로켓 결합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

나로호 발사 중단 원인

지난 19일 7분56초를 남겨두고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의 문제점은 압력 측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자동시퀀스 상 고압탱크의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따라 나로호는 연료를 배출시켰기 때문에 추진체 내부를 건조시키는 데 3일이 걸려 이 기간만큼은 발사 연기가 불가피하다. 한·러 기술진은 같은 기간 중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런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23일부터는 나로호 발사가 가능하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지되면 진행이 곧바로 중지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또 추진기관 공급계 내에는 다양한 밸브를 작동시키는 헬륨 고압탱크가 있는데, 이번 발사에서 자동시퀀스 절차에 따라 발사 7분59초 전 추진체 공급 경로 상의 밸브가 작동된 후 고압탱크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사 7분 56초 전에 자동시퀀스 진행이 중지됐다. 이 때문에 나로호는 연료를 배출시켰기 때문에 추진체 내부를 건조시키는 데 3일이 걸려 이 기간만큼은 발사 연기가 불가피하다. 한·러 기술진은 같은 기간 중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런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오는 23일부터는 나로호 발사가 가능하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김준규 검찰총장 등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공정위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발전시켜나가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업들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m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희호 여사 ‘이별 편지’ 관속에 넣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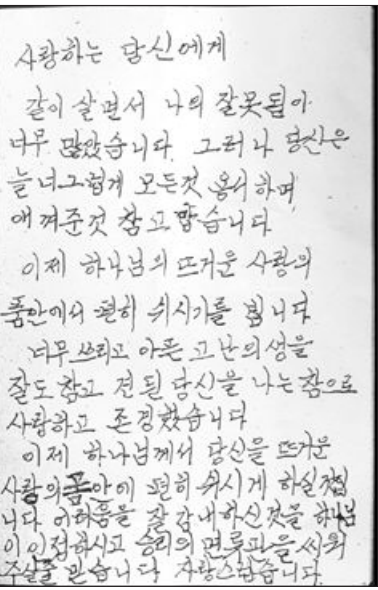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미망인 이희호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20일 오후 임시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비공개 입관식에 참석했던 김 전 대통령 측근 최경환 비서관은 “여사께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전날 탈진 증세로 동교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이 여사는 오후 1시10분께 비서관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에 되돌아왔다. 오후 1시30분부터 서교동성당 윤일선 주임신부의 주례 아래 천주교식 미사로 진행된 입관식은 유족과 측근 등 50여명이 모두 흐느끼는 ‘눈물의 입관식’이었다. 관친신씨병에 걸린 탓에 휠체어에 앉은 큰아들 홍일씨를 비롯해 홍업, 홍결씨, 며느리, 손자녀, 역시 휠체어에 앉은 동생 대현씨 등 유족도 촛불과 함께 손수건을 든 채 눈물만 흘려냈다.

주변의 끊이지 않는 흐느낌에도 김 전 대통령은 관 속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입도 살짝 다문 고인의 표정은 질긴 고난의 삶을 영원히 뒤로 한 채 평온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뒤로 빗겨져 말뚝했다.

이 여사는 이때 자신이 전일부터 사저에서 자제전인 ‘동행’의 앞표지 뒷면에 친필로 작성한 ‘이별 편지’를 공개했다. 목이 메어 비서관에게 대신 읽게 한 편지에서 이 여사는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아껴 준 것 같 고맙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견디신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라고 썼다.

이 여사는 이 책과 고인이 즐겨 읽던 성경책, 자신이 쓰던 손수건, 직접 뜨개질한 배 달개 등 4가지를 함께 관속에 고이 넣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늘 하시던 히 뒤로 한 채 평온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뒤로 빗겨져 말뚝했다. 대통령님을 모셨듯



이희호 여사가 입관식에서 자신의 저서 ‘동행’과 함께 고(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관에 넣은 편지. <관련기사 5면>

이 여사님을 모시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통합의 길이 열렸고 북한에서도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오열했다. 동교동계 4인방인 권노갑, 한화강,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도 나란히 서서 “여사님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연필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Byeong) by Kim Jung-do. Includ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with a speech bubble and the text 'DJ가 주는 마지막 선물'.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회사인수원함 LED,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연락처: 010-8448-4869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상담환영 062)515-4985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출공고) 2009년 8월 21일

합병 및 주권채출공고 2009년 8월 21일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남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추천 금매출권 - 펜션부지회적.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면적적 300석 권비 - 피로연, 회합연, MT회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메꽃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출공고) 2009년 8월 21일

분묘개장공고(1차) 2009년 8월 21일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 16.925㎡ (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 (중흥스퀘어 인근) - 매 3.3㎡당 8만5천원